

민족의 리악을 해치는 범죄집단, 썩은 군대의 진면모

8월의 하루하루가 흘러가고있는 속에 불안한 조선반도정세도 전쟁집경으로 수위가 한층한층 올라가고있다.

알려진것처럼 공화국은 최근 국방위원회 특별제안과 정부성명을 통해 참여하고 복잡한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적인 립장을 천명하고 성의와 진정성있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그러면서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에 의지가 있다며 8월중순으로 계획된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날로 커가는 제 전쟁발발의 위험을 가시고 북남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하려는 단호한 결심과 의지의 발현이다. 우리 민족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공화국의 정당한 제안을 적극 지지찬동하여 남조선당국이 여기에 호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런데 남조선군부세력은 여기에 정면도전하여 외세와 함께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연습을 끝날내 강행할 기도를 포물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시시각각 밀려들고있으며 세계는 우려와 불안속에 앞으로의 사

외세와 야합하여 전쟁 불구름을 몰아오는 호전세력

태추이를 지켜보고있다.

남조선호전세력들이 외세와 야합하여 벌리려는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그 성격과 내용, 기간과 규모 등으로 볼 때 철두철미 공화국에 대한 기습적인 선제공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이다. 이번 연습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미군부력과 남조선군부력 및 최신전투기술기재들이 투입되고 남조선 《정부》기관들과 중요대상의 공무원 및 민간인들만 해도 48만명이 동원된다고 한다. 지난 1일 미공군 F-15E 12대가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기 위해 3년만에 평택에 재배치된것을 비롯하여 대포대와 그 주변지역들에 침략무력들이 집결되고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이번 연습에서 그누구의 《핵, 씨싸일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밑에 《맞춤형억제전략》을 공식 적용하려 하는것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이번 전쟁연습은 제2의 조선전쟁을 가상한 실동훈련이라고 볼수 있다.

호전광들의 이러한 전쟁광기로 북남관계가 또다시 파국의 위기에 처하고 조선반도에는 당장 전쟁이 발발할수 있는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고있다.

따지고보면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북남관계에서 완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면 그에 찬물을 끼얹는 적대행위들을 거리낌없이 감행해온 것이다.

다른것은 제쳐놓고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은 흠어진 가족 및 친척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문제해결을 통한 북남관계완화분위기에 외세와 야합한 《키리졸브》 합동군사연습으로 재를 뿌리는 망동을 부리었다. 최근에 들어와서도 호전세력들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북남관계개선의지를 담은 공화국 국방위원회 특별제안과 정부성명에 북침전쟁

연습으로 대답해나섰다.

이뿐이 아니다.

공화국에 대한 남조선호전광들의 악의에 찬 비방중상, 끊임없이 벌어지는 도발소동은 북남관계를 헤어나올수 없는 파국으로 깊이 몰아넣고있다. 국방부 장관자리에 앉기만 하면 그가 누구이든 측대우에 올라앉은 민중이마냥 기고만장하여 북에 대한 《도발》소동에 미친듯이 날뛰고 있는것이 바로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들이다. 동족대결과 전쟁에 미친 군부장관들의 입에서 《응징》과 《보복》이라는 소리가 두서없이 튀어나오는 속에 이제는 《별리 없어져야 할 나라》, 《체제의 생존》까지라는 극단적인 폭언까지 터져나오고있는 판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이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위협을 대결정책실현의 기본수단으

→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 북침전쟁연습을 벌리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남조선군내에서의 구타와 폭행, 치명리는 인권유린행위들은 각계층 남조선인민들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자식들을 군대에 내보낸 어머니들은 쓰러린 가슴을 부여안고 《일제강점시기 고문보다 더 심한것을 보며 자식을 둔 엄마로서 매일 눈물을 흘리고 치를 떨었다. 이런 나라에서 사는것이 화가 난다.》고 하는가 하면 《군대간 아들을 당장 데려오고싶다.》, 《이런 군대에 아들을 못 보내겠다.》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남조선의 《국회》를 비롯한 정계에서까지도 유일병구타사망사건은 또 하나의 군대 판 《세월》 호사건이라고 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규탄이 비발치고있어 군부는 진땀을 뺀고있다.

따지고보면 《세월》 호참사와 유일병사건은 엇비슷한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세월》 호참몰사건은 아이들을 포함한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참사이다. 《세월》호의 침몰은 초기에 대형 《사고》로 시작되었으나 《정부》의 무능과 부실한 대응, 인간의 생명보다 돈과 권력만을 우선시한 범죄행위로 하여 얼마시간 버틸수 있었던 수백명의 목숨을 차치한 바다목숨에 수장한 반인륜유혈행위로 부각되었다. 그런 속에 사건의 책임자들은 저들의 죄행을 덮어버리기 위해 사건의 진상을 은폐, 축소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남조선인민들의 보다 큰 분노와 규탄을 불러일으켰다.

유일병사건 역시 반인륜범죄로서 그에 대한 당국의 대응 등 《세월》 호참사와 다를바 없다.

4월에 있었던 이 사건은 《단순사고》로 되어 덮여졌다가 집단구타살해만행으로 그 참혹한 진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남조선군부에서 타살과 자살사건은 비밀비해한것으로서 이번에만 제기된것이 아니다. 사건이 제기될 때마다 《인권교육강화》니, 《자살예방체계구축》이니 하고 떠들며버려 군내부의 폭력실태를 개선할

군대 판 《세월》 호사건

듯이 떠들며버렸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몇해전에도 군부는 온갖 강압과 폭력이 란무하는 군내의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는》다고 하면서 《육성과의 전쟁》이라는것을 선포하였었다. 하지만 극도의 인간중요사상과 동등이규를 이 란무하는 군대에서 그것은 소극에 걸림이 식이었다. 그것은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조금도 다름바 없었다. 이처럼 남조선군대에서는 사병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행위가 거리낌없이 매일과 같이 벌어졌다. 남조선군대로 자살과 총기탄사와 같은 가족행위 등 사고를 유발할수 있는 《판사살인》이 7 000여명이 나 되고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군내 전체 사망자의 65%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이를 그대로 설명해주고있다. 이렇게 놓고보면 무책임한 대응과 무능으로 초래된 《세월》 호참사와 무관설과 무대책으로 수많은 자살자, 구타사망자를 내고있는 군부내의 반인륜범죄가 같고같다는것을 보여준다.

문제로 되는것은 남조선군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반인륜적만행들이 《세월》 호사태처럼 권력의 자리를 유지해버리는 상층부의 의도적인 은폐와 축소로 감춰지고 묵인된 사실이었다.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폭로한데 의하면 유일병구타사망사건이 있는 지난 4월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이 사건의 진상을 보고받고 군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여 그와 비슷한 가족행위가 3 900여건이나 적발되었는데 그는 자기의 진급에 영향이 미칠까봐 몇명의 하급장관들을 제물로 바치고는 《자살사고》로 덮어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7월말 《군인권단체》에 의하여 유일병사건이 폭로됨으로써 이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직접적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인 김관진은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오히려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아직도 목재가 뻗뻗해있으니 그 후안무치함에 아연함을 금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자 역시 유일병사건을 놓고 《일벌백계하고 책임

을 물겠다.》고 콘소리는 했지만 당시의 국방장관이던 김관진과 같은 기본인물들은 다 빼고 부랴부랴 특권참모총장의 목을 매버렸는가 하면 군부관계자들과 해당 장교들에게 징계조치를 취하면서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내온다. 《병영문화개선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하며 복닥소동을 피우고있다. 허나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한 한갖 뺨패기놀음에 불과하다.

사실상 남조선군의 거의 모든 《자살사고》들은 유일병사건과 같이 타살이고 살인사건이다. 오늘날 남조선군에서 상층부의 묵인과 조작으로 덮어버리는 수많은 살인과 폭행, 구타와 성폭행만행들이 특권참모총장이나 몇몇 하급장교들의 책임일수는 없으며 그들을 갈아치운다고 해서 실지로 해결될것은 하나도 없다.

물에 빠진 놈 지푸라기라도 잡는 격으로 이번 사건을 놓고 남조선 《국회》에서는 뉴대전화가 있어 학교폭력이 많이 줄고있는데 폭행과 가족행위들을 부모들에게 일러바치며 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자기의 죄악으로 하여 력사의 부덕소으로 빠져들고있다.

《세월》 호참에 관여했던 수백명 아이들도 휴대전화를 가지고있고 그것으로 부모들에게 에라게 살려달라 간성했지만 그들은 단 한명도 살아남을수 없었다. 하물며 군대에서 휴대전화가 없어서 살인과 폭행을 방지하지 못했다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이다.

태어난 때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미제의 총알받이 대포밥으로, 대조선정착정책의 돌격대로 조직되다니 똑똑한 명뿐이나 사명감이 없이 남조선군대는 각종 기합과 폭행으로 겨우 유지되고있는 판이며 이는 절대모 고칠수 없는 고질적병폐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군을 유지하는 기본수단인 폭력을 《군절》

하겠다는 말은 뒤집어말하면 남조선군이 해체해야 군절될수 있다는 소리다. 그렇기에 남조선의 한 야당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은 《세월》 호사건과 관련한 해경은 해체하라 했는데 이렇게 잘못이 많은 특군에 대한 해체지시는 없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군내부가 서로 좌측일대기로 먼저 붕괴될것》이라는 개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오는것이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은 제 집안의 험악한 인권유린참상은 덮어두고 공화국에 대고 터무니없이 《인권》을 떠들며 어대고있으니 정말 알몸통이

가장 썩어지고 부패한 이런 토미부리나 다름없는 오합지졸을 가지고 주재님께 《응징》이니, 《체제생존각오》이니, 《멸종》이니 하고 떠드는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호언장담은 말을 보고 싶어서는 개소리라고 할가. 외세의 식민지교육군으로서 살인과 폭행이 란무하고 반인륜적부패로 썩어빠진 남조선군은 너무나 많은 자기의 죄악으로 하여 력사의 부덕소으로 빠져들고있다.

그러나 성난 민심은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현 청와대안보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본사기자 서 희

오합지졸의 무리를 내세워 우리와 맞서보겠다니...

남조선의 괴뢰군내에서 동료로 집단적으로 매러죽인 야만적인 살인사건이 또다시 일어난 소식을 듣고 세상에 이런 군대도 있나 하고 혀를 차지 않을수 없었다.

전시에 적군을 포로로 붙잡아 매러죽인것도 국제법위반인데 평시에 그것도 함께 군복무를 한다는 자기 동료로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인인한 방법으로 죽였다니 이제 야만의 무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여기에 어더 인간의

로 삼고 미국과 야합하여 뻔질나게 벌려놓고있는 북침불장난을 비롯하여 각종 도발소동들은 북남관계를 최악의 위기속에 몰아넣고 조선반도에 항시적인 전쟁위협을 조성하고있다. 북남관계의 현과국적사태는 우연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남조선호전세력들의 골수에까지 짝 들어차있는 동족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 체질적인 적대관념이 초래한 필연적결과이다.

한편줄을 나는 동족을 《주적》으로 삼고 민족의 통일을 《체제통일》로 보며 대하는 호전세력들의 대결일변도적인 관점과 립장이란에 불과하고 침략적인 외세와 함께 8월중순부터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 하고있다. 그들은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예정대로 진행할것이라느니, 이번 연습에 지난해와 같이 대규모의 미군과 남조선군병력 및 최신전장장비들이 동원되게 된다는니, 4 000여개의 《정부》기관들과 중요대상의 민간인 48만명이 참가하게 된다는니 뭐니 하면서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거베의 지향에 엄중히 도전해 나르고있다.

본사기자 김 응 철



이로 말미암아 현시기 조선반도에는 북남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정세가 최극단으로 치달아오를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

동족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집중적산물

리를 높이면서 《악마의 집단》, 《거대한 조직폭력단》, 《내부의 주적》인 군대에 자식들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일대거부서명운동까지 벌리고있다.

당황한 군부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조직하여 다시는 군대에서 가족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

려를 높이면서 《악마의 집단》, 《거대한 조직폭력단》, 《내부의 주적》인 군대에 자식들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일대거부서명운동까지 벌리고있다.

당황한 군부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조직하여 다시는 군대에서 가족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

려를 높이면서 《악마의 집단》, 《거대한 조직폭력단》, 《내부의 주적》인 군대에 자식들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일대거부서명운동까지 벌리고있다.

당황한 군부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조직하여 다시는 군대에서 가족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

려를 높이면서 《악마의 집단》, 《거대한 조직폭력단》, 《내부의 주적》인 군대에 자식들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일대거부서명운동까지 벌리고있다.

당황한 군부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조직하여 다시는 군대에서 가족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

려를 높이면서 《악마의 집단》, 《거대한 조직폭력단》, 《내부의 주적》인 군대에 자식들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일대거부서명운동까지 벌리고있다.

당황한 군부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조직하여 다시는 군대에서 가족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

려를 높이면서 《악마의 집단》, 《거대한 조직폭력단》, 《내부의 주적》인 군대에 자식들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일대거부서명운동까지 벌리고있다.

당황한 군부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조직하여 다시는 군대에서 가족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

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군 70년, 나라의 분령로 우리 민족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을 한두마디의 말이나 글로 써 다 표현할수 없다.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것은 민족의 사활적인 요구로, 더는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나르고있다.

거베의 절절한 지향과 념원, 시대적요구로부터 공화국은 국방위원회 특별제안과 정부성명을 통하여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현실적이고 성의있는 제안을 내놓았으며 긴장격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되고있는 미군남조선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남측에 주동적으로 제기하고 그 성사를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남측의 부당한 태도와 도발행위로 하여 모처럼 진행된 북남실무회담은 아무 합의도 이루지 못한채 결렬되고말았다.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 남조선보수당국은 지금 대규모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는것으로 대답해나서고있다.

외세와 야합한 합동군사연습이 전쟁을 위한것이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더우기 미국은 조선분렬의 장본인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있는것도 미국의 집요하고 끈질긴 방해책도와 주요

찬을 비롯한 일제치원병출신 이 17%, 백전연, 정일원을 비롯한 일본괴뢰군인 위만군출신 이 18.6%였다사실은 이에 대한 증명이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0년대초 남조선군의 장성급장교들의 74.1%가 바로 《유신》 독재자를 비롯한 일본사관학교, 만주군관학교, 일제

학도병, 일제지원병, 위만군 출신들이었다. 《대동아영권》의 실현을 위해 아시아지역에 침략의 불을 지른 과거 일본군이 기합과 동맹으로 질서와 규율을 세워왔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일제에게 복무한 자들이 남조선군부의 실권을 장악하고 저들이 배운 그대로 군내부에 동등이규를 기함설을 세운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남조선군대는 미국의 식민지교육군으로서 조직될 때로부터 시작하여 6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괴물인 본성기함과 동등이규를 유지되어왔다. 군내부에 만연되어있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기함, 동등이규들과 같은 반세기 가 훨씬 넘도록 굳어질대로 굳어진 이러한 제도

를 고칠수 없는 야만적행위로 인해 남조선군의 한 사병이 끝내 숨진 사실을 전해 듣고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하루가 멀다하게 들려오는 동료사병들에 대한 총기탄사 사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함과 폭행을 견딜수 없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사건 등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남조선군에서 터진 이번 살인사건은 남조선군이야말로 극도의 인간중요사상과 동족적대적의식에 물젖은 야수의 무리라는것을 만천하에 폭로하고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 생애같은 아들을 군대에 내보냈다가 잃은 수많은 유가족들이 자식이 죽은 인연을 똑바로 규명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국방부앞에서 울부짖었다나 자식을 가진 어머니로서 그들의 고통과 울분이 심본 리해가 되고 거기에 내 목소리로 합치고싶다.

상상을 초월하는 인권유린이 공공연히 자행되는 인권의 불모지, 인간을 야수로 만들고 괴를 낳은 동족을 《주적》이라고 주입시키는 범죄집단인 남조선군에 절대 제 자식들을 보내지 말라고

모란봉구역 월향동 김 신 욱

하게 관련된다. 미국은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친미보수파당을 동족대결로 끊임없이 사족하는가 하면 정세를 인위적으로 긴장시키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왔다. 전조선을 저들의 지배하에 넣으려는 미국의 북침야망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다.

북남사이의 진정한 신뢰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런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벌리는 북침전쟁연습은 동족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집중적산물로서 북남관계에서 신뢰가 아니라 파국과 대결을 몰아올뿐이다. 지나는 북남관계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내외호전세력의 광란적인 북침전쟁소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가 전쟁직전까지 갔던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올해에만도 북남고위급접촉이 진행되고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성사되어 관계개선의 첫걸음이 열리고있는 때에 강행된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으로 하여 모처럼 마련되었던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깨어지고 대결과 전쟁위험만이 증대되었다. 그때은 거베와 세계는 이런 전쟁연습이 계속되는 한 북남관계는 개선이 아니라 파국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뼈저리게 절감하였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있다면 북남사이의 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공화국의 성의있는 제안들에 적극 호응해나야 하며 외세와 야합한 각종 북침전쟁연습을 전면중지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최 광 혁

와 질서를 그 무슨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통해 없애보겠다고 하니 누가 믿겠는가.

이번 군부내에서의 집단구타살인만행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문제가 또 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병영문화》, 《군기잡기》와 함께 미중, 고등학교들에서 어릴 때부터 집단폭행이 악습으로 자래

고 있다. 이런 군부내에서의 집단구타살인만행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문제가 또 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병영문화》, 《군기잡기》와 함께 미중, 고등학교들에서 어릴 때부터 집단폭행이 악습으로 자래

고 있다. 이런 군부내에서의 집단구타살인만행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문제가 또 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병영문화》, 《군기잡기》와 함께 미중, 고등학교들에서 어릴 때부터 집단폭행이 악습으로 자래

고 있다. 이런 군부내에서의 집단구타살인만행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문제가 또 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병영문화》, 《군기잡기》와 함께 미중, 고등학교들에서 어릴 때부터 집단폭행이 악습으로 자래

고 있다. 이런 군부내에서의 집단구타살인만행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문제가 또 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병영문화》, 《군기잡기》와 함께 미중, 고등학교들에서 어릴 때부터 집단폭행이 악습으로 자래

고 있다. 이런 군부내에서의 집단구타살인만행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문제가 또 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병영문화》, 《군기잡기》와 함께 미중, 고등학교들에서 어릴 때부터 집단폭행이 악습으로 자래